

일주문



용주사 사도세사250주기 특별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7월 6~30일 용주사 호행박물관에서 사도세사 저거 250주기 추모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파라미타 리더십 캠프 파라미타정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6월 9~10일 충남 금산 대둔수련원에서 파라미타 전국 간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다.



미술세계 초대 기획전 동양화가 해림 윤석임 씨(대전 보은정사 신도회장)가 '미술세계초대 기획전'을 6월 13~18일까지 인사동 '공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힐링댄스스터디 개강 이철진 성균 소극장 대표는 극장무대를 활용한 무용치료프로그램 '힐링댄스스터디'를 6월 12~7월 21일까지 펼친다.

“민중불교 뜻 이어 나가자”

여익구 민불련 초대 의장 입적 초재 6월 10일 흑석동 달마사서



불교계 민주화 운동의 거목 여익구 민중불교연합 초대의장(사진)이 6월 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여 의장은 이날 11시 충남 서천 인근 국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으며, 서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여 의장은 민중불교운동 1세대라고 불리며 70~80년대 불교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10년을 구형 받고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1975년 '민중불교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속세에 회의를 느껴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인사로 5년 간 출가하기도 했다. 70년대 뜻 있는 몇몇 불자 청년들이 던진 조그마한 불씨인 '민중불교운동'은 80년대에 들어서면 들불처럼 번져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하기도 했다. 1981년 대불련 사무총장에 취임한 여 의장은 청년불교도연맹과 법사단을 기획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다. 장례는 불교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노재는 6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노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 장기표 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 의장의 시신은 노재 후 대전 국립 현충원에 안치되기로 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로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로 유해를 옮겨 봉안식을 가졌다. 여 의장의 초재는 6월 10일 흑석동 달마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는 17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49재는 7월 22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현성 스님, 호국영령위령대제

6월 6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나의 존재가 이웃·국가·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소년교우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제29회 위령대제를 봉행하고 법회를 열었다. 현성 스님은 법문에서 “스스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발휘할 때 비로소 현실에 중첩된 난제들이 해결되고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통일이 높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과 군인 등 청년불자 포교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현성 스님은 이에 앞서 5월 1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위치한 호국연무사를 찾아 수계법사로 나서 3500명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신축 불사 완공 후 처음으로 열린 수계법회다.

이 밖에 스님은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양교도소 2300명 전 재소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200여 재소자를 위한 수계식도 봉행했다. 이은정 기자



현성 스님이 5군단 소속 대령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묘주 씨, 한국여성불자상 수상

6월 2일 한국여성불자연합회 시상식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이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한재숙)는 6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식당 라 피아짜에서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묘주 명예회장은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창립을 비롯해 30여 년 동안 여성NGO 활동을 통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진출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김 회장은 행복한가정상담소, 이혼예방센터 등을 개설하고 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고희연을 겸한 이날 김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30년 가까이 불법 흥포와 여성 불자의 권익신장에 노력해 왔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여성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포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20년 이상 포교에 정진하며 생활불교·대중불교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를 발굴해 ‘한국여성불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한재숙·사진 오른쪽)는 6월 2일 김묘주 명예회장(사진 왼쪽)에게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을 수여했다.

한일 불교 100년사 연구모임 추진

진관·법상 스님 발기...6월 28일 한일불교교류대회서 제안

“현재 한국불교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려면 100년 전 개화기 당시부터 진행된 조선불교 전반의 흐름을 고찰해야 합니다. 근대 한일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을 통해 일본불교계와 공동으로 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대 일제 침략이 불교계에 미친 여러 영향을 파악해 현재 불교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6월 6일 근대 한일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을 발기했다.

발기인으로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참여했다.

진관 스님은 6월 5일 만난 자리에서 진관 스님은 “일본불교 전체 청산 명목 하에 일본불교를 언급하는 것부터 금기시 되다보니 일본불교로 인한 영향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연구모임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관 스님



법상 스님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계는 마치 조선시대 역불승유모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화기 이후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일본불교 대표들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일본불교계와도 근대사 연구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불교근대사에서 일본불교의 영향과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불교 근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스님이 추진하는 근대 한국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은 △조선 개화기 이전 조선불교 발전 △조선 개화기 선불교 태동과 제가불자들의 역할 △고종 이후 조선불교 활동 △도성출입금제 해제의 역사성 △일본불교계의 조선포교당 설치 △조선총독부시대 조선불교 △미군정 시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현대 한국불교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모임이 향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등에 일본불교와 근대사를 연구하는 스님, 학자들의 연구를 증진하는 모임으로 발돋움해 대학 강단에서도 근대사를 강의하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진관 스님은 “한일불교의 근대사에서의 상호 영향을 조망함이 한일불교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엄사 조실 종산 스님 추대



구례 화엄사 새 조실에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화엄사는 원로의원 명선 스님을 화엄사 문장에, 현 선원장 현산 스님을 선덕으로, 종남 스님을 새 선원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화엄사문도회 스님 30여 명은 지난 6월 2일 충북 청주 보살사에 주석종인 종산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해 9월 도전 스님 원적으로 공석이 된 화엄사 조실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화엄사 문도들은 “종산 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산 스님은 1949년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제9대 중앙총회 법제분과위원장, 임시 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친연사 방장선원 조실, 제5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7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박재완 기자 신인상 수상

〈에세이스트〉에 ‘산사로 가는 길’로 등단



박재완 현대불교신문 사진부 차장이 ‘산사로 가는 길’로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 신인상을 수상, 수필가로 등단했다. 박 기사는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박재완 기자의 불교 사진 이야기’를 연재해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당선작 ‘산사로 가는 길’은 그가 산사에 다니면서 느낀 단상들을 담은 글이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도 찍을 수 없는 풍경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진가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좌절과 희망을 반복하던 그는 절이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고, 자신의 종교가 그곳에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준 산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산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세상이 받아줄 수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그의 작품은 에세이스트 5.6월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김자영 골프선수, 동국대에 기부



최근 여자 골프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김자영 선수가 6월 4일 1000만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상금 중 일부로 김자영 선수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장학금에 보태달라”고 기금전달의 의미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국대 체육교육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자영 선수는 2010년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김자영 선수는 “평소 학교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ist education and sound equipment. Includes tex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무선 마이크 무료보시!', '유코음향연구소'.